

03/04 MARCH/APRIL 2018
통합의료원보 vol. 46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온전히 한마음으로
다가섭니다



봄을 맞이하여 순천향 가족은 환자를 위해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다가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순천향〉애독자에게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TEL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발행일 2018년 3월 25일
발행인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홍보팀 02-709-9120
기획 편집 제작 피앤플러스 백승주 02-2269-5689
인쇄 상림인쇄
※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무단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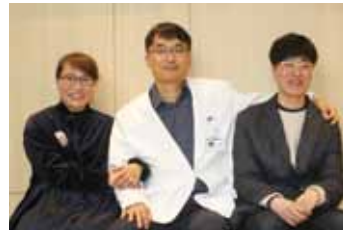
Special

순천향 ‘한마음대회’



06

감동 스토리 ‘나를 살린 순천향’



08

Issue 1

부천병원, 평창 동계올림픽 의료지원단 파견



10

Issue 2

네팔에서 인술 펼친 박병원 교수와 천사들

12

Focus 1

천안병원, 병원 만들기 가슴 따뜻한 도전

14

Special Family

송지영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장



16

Field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20

Doctor

권세원 천안병원 정형외과 교수



22

New Medicine 1

비만수술, 암 발병률 감소

24

New Medicine 2

MRI 이용 간세포암 발현 여부 예측 가능

26

New Medicine 3

자궁내막증식증 최신 치료법

28

Knowledge 1, 2

- 1_ 대장내시경 ‘장 정결 동영상’ 교육효과 만점
- 2_ 비후성 유문 협착증

30

Knowledge 3, 4

- 3_ 청소년기 여드름 치료법
- 4_ 허리 통증에 대한 이해

32

Visit

이승주 드림이비인후과 원장(3회)



34

OB News

35

Medi Column

초기 대응의 중요성,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36

Health & Food

중장년층이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

38

Travel

고군산군도 구불길



40-46

News

Schedule

Letter of thanks



2018 미래 선도할 순천향의 힘찬 발걸음 조명

한마음대회 및 산하 병원의 설계

이달부터 본격 시작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 산하병원의 2018 새해 목표와 비전을 한마음대회와 함께 조망해봤다.

먼저 올해 8번째를 맞는 한마음대회는 재단의 산하기관인 대학과 4개 병원의 보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연 1회 개최한다. 각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기관별로 돌아가며 진행한다.

올해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한마음대회를 가졌다. 대회에는 동은학원 김부성 이사장,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총장, 황경호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김승우 경영부총장, 황창순 교학부총장, 정한용 일반대학원장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와 4개 부속병원(서울·구미·천안·부천)의 주요 보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유성 서울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교일 총장의 축사와 김부성 이사장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기관별 발표 ▲병동 리모델링 보고 ▲병동 투어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기관별 발표에서 전창완 순천향대 기획처장이 '양프레프레너 대학, 그 도전과 응전', 이정재 서울병원 부원장이 'Spotlight 2018'을 발표했다. 이어서 부천병원 김진국 부원장, 천안병원 강규식 부원장, 구미병원 양승부 기획실장이 '2017년 운영성과 및 2018년 운영계획'을 각각 다뤘다.

탁민성 서울병원 병동진료부장의 '병동 리모델링 보고'를 끝으로 참석자들은 신관부터 외래구역을 돌며 달라진 서울병원의 모습을 실감했다. 특히 종합검진센터의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는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날 서교일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마음대회를 통해 타 기관이 잘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 기관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부성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작년 한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 드림 대학평가에서 순천향대학교가 3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며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단점을 교류할 것"을 당부했다.



황경호 순천향 중앙의료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마음대회를 통해 타 기관이 잘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 기관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 달라.”

서울병원

스포츠라이트 2018, 비전 2020 가치관 의료경영 소통하는 조직문화

서울병원은 2018년의 새로운 슬로건을 ‘스포츠라이트 2018, 비전 2020 가치관 의료경영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스포츠라이트-2018’은 서울병원의 현재 경영상 적신호를 스포트라이트처럼 환하게 비춰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전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제도 마련했다. 먼저 재무부문은 의료수익 6.3% 향상과 의료비용 -5% 절감, 의료 질 평가 1등급, 의료이익의 흑자 전환이다. 둘째, 프로세스 부문은 진료지원 및 행정 프로세스 체계 개선, 직종 및 부서 간 협업 강화,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진 프로세스 공유다. 셋째, 고객만족 부문은 환자경험서비스 강화와 고객 대응 채널 다각화,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 배려하는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과 성장 부문에서는 개인단위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중심 병원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전략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완료했다. 기존의 교육수련부장, 외래, 병동, 지원진료부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경험부장과 연구부장을 신설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병원급이면 연구가 기본 바탕이 돼야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연구중심병원도 준비를 한다는 포석이다. 기존 TFT는 순천향의 약자인 SCH로 나눠서 strategy, charge, harmony 로 각각 전략, 수가, 조직문화를 담당한다. 미래전략실은 정책 위주의 형태로 변경하고, 개념 설정과 방향성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병원은 올 한해 물질보다는 감성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업무 성취감이나 부서 간 소통, 화합 같은 직원들의 가치, 그리고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염원하고, 학문적으로도 성취감을 높이고자 하는 의료진의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부천병원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2001년에 개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병원의 막내 병원이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3주기 연속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는 등, 그 성장세가 무섭다. 지난해 4개 부속 병원 중 제일 먼저 최첨단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해 국내 최단기간 로봇수술 100례, 200례, 300례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는 한편, 지난 1월 간이식 100례를 달성하며 이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천병원의 수장을 맡은 신용진 병원장은 ‘日日新又日新(일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을 모토로 삼아 2018년을 ‘다가올 개원 20주년을 향해 새롭게 나아갈 해’로 공포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바로 ‘급성 중증환자 전문병원’, ‘실력 있는 병원’, ‘존중하는 직장문화’이다. 신 병원장은 중증 암환자, 중증 뇌신경환자, 중증 심혈관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 중증환자 비율을 확대하고, 재원 일수, 적정성 평

가 관리 등 적정 진료를 통해 중증환자 중심의 특성화 병원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연구실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진 연구 및 실험지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다양화 등 연구와 교육을 통해 실력을 갖춘 병원이 되어 환자에게 신뢰받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끝으로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화목하고 단합하는 조직,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고, 환자 만족을 위한 개선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직원이 행복하고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신 병원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천병원 조직을 개편했다. 국제의료협력실장, 적정진료실장, CS실장, 20주년 기념사업단장, 로봇수술센터장, 사회사업실장, 의료정보실장, 의학도서관장직을 신설했다. 기획예산팀과 적정진료팀을 분리 및 신설해 경영기획을 강화하고, 환전안전 및 중증환자 관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중환자실 병상을 확대하

구미병원

“Value up 2018” 병원의 가치를 높이고 飛上하는 2020년을 위한 上上을 하다

2018년은 부위정경(扶危定傾)하는 의미에서 구미병원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디자인(SCHGM Redesign : OFA) 하여, 교직원들의 氣를 살리고, 병원의 공간을 디자인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공하여 ‘하나 된 순천향’과 ‘지속적인 병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취임하신 임한혁 병원장과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병원과 우리의 가치를 성장시켜 교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전교직원이 합심하여 야심차게 미래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경쟁력 있는 병원을 위해서 진료부를 강화’하여 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한다. 우수한 교원의 충·증원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는 병원으로 만들어,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하며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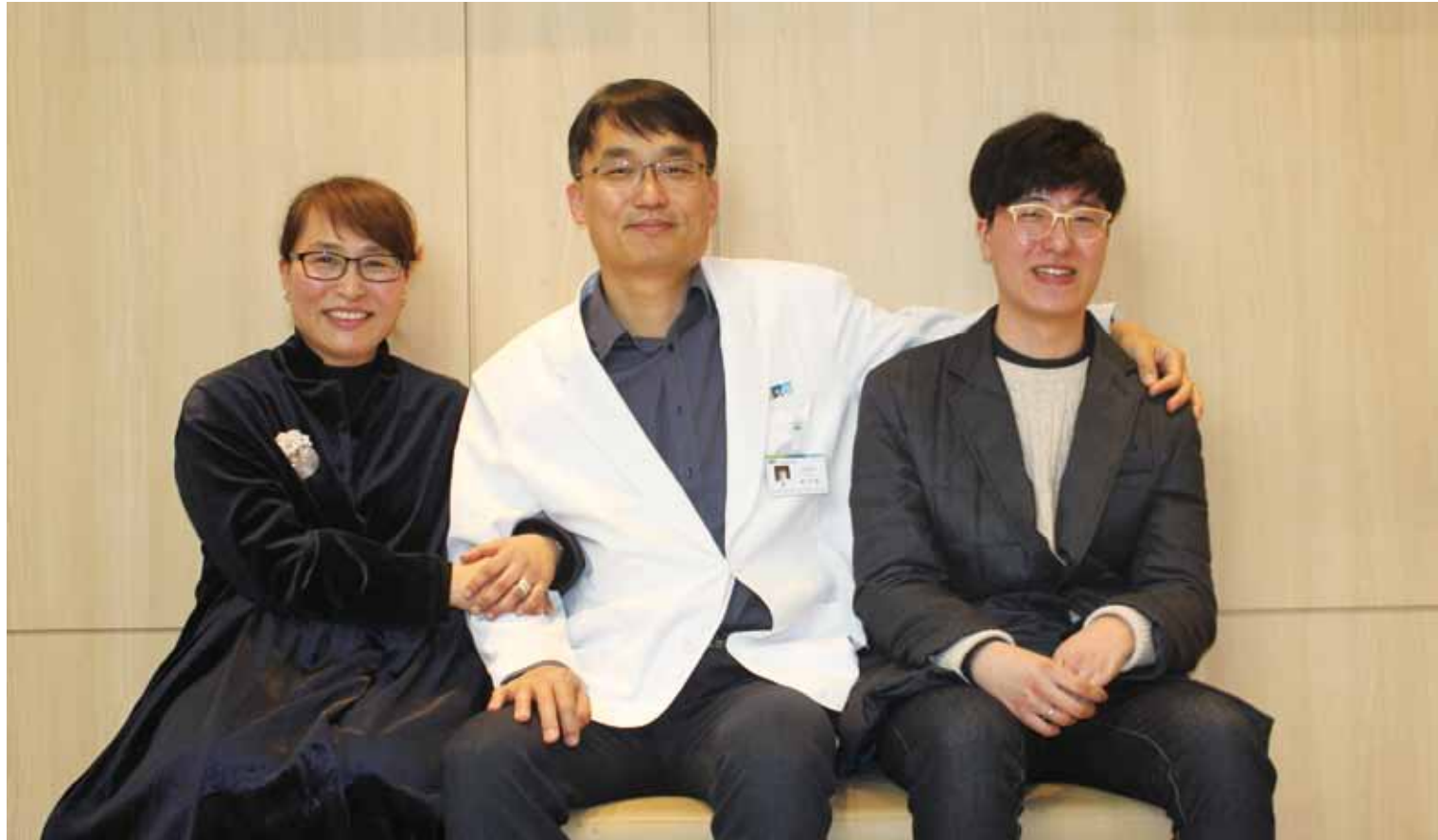
고객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차별화 된 환자 경험”을 제공 하여, 지역민들에게 “구미병원이 정말 변했구나.” 안심하고 다시 찾는 병원과 더불어 세 번째 교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교직원 소통(업무적, 조직적, 환경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술선수법 선포식을 통하여 화합과 기본에 충실, 세 대간의 갈등을 없앤다. 구미병원은 내년 2019년이면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Vision 2020을 준비중이다. 임한혁 병원장과 더불어 모든 교직원은 약속하고 다짐한다.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 꼭 해내겠다고. 지역민이 다시 찾는 병원, 교직원이 행복한 병원,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병원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찾은 평생의 꿈’

황선철 부천병원 교수, 미래의 대한민국 대표 일러스트레이터를 지켜내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 그저 마지못해 죽음을 기다리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꿈을 찾는 여정은 참으로 고되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먹먹한 죽음의 문턱에서 오히려 평생의 꿈을 찾아낸 20세 청년의 이야기가 주는 깊은 울림에 주목한다.



젊은 당신, 건강을 결코 자신하지 말라

올해로 만 20세를 맞이한 최원 씨는 지난 2013년 1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부천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는 다량의

뇌실내출혈 증세를 보이며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급보를 전달받은 황선철 신경외과 교수는 그 즉시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응급실로 향했다. 해당 환자처럼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찰나의 지체조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황 교수는 “뇌출혈은 곧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공식은 이미 상식으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라며 “때문에 뇌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항상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병원은 빠른 처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뇌 관련 손상의 특성을 십분 반영해 언제든지 동일한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쉽게 말해 24시간 내내, 새벽 3시 30분이라고 할지라도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일련의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황 교수는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빠르게 진료를 진행한 후,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과와의 협진을 요청했다. 검사 결과 환자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황 교수는 즉각 수술을 결정했다.

황 교수는 “당시 환자에게 시행된 수술은 뇌실외배액술과 갑상성개두술, 혈중제거술 등이다”라며 “신체 어떤 기관보다 예민하고 민감한 뇌를 다루는 수술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부천병원의 최신 의료시설 및 장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의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천병원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진과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 및 장비로 조금도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자의 진료를 마쳤지만 뇌출혈의 가장 문제점인 후유증은 피할 수 없었다. 신체의 왼쪽 부분에 마비가 발생한 것이다.

발병 당시 환자는 신체적인 전성기가 시작되는 18세 소년이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고비인 이른바 ‘대한민국 고3’을 코앞에 둔 시기였다. 여느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고3 생활을 준비하던 환자는 뇌출혈로 인해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

드라마의 단골소재로 쓰이는 뇌출혈은 대부분 높은 나이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다. 하지만 여러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20~30대, 심지어 10대에도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아집도 없다. 지금 푸릇한 청춘이 다시 한번 자신의 건강상태를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최원 환자가 그린 일러스트 작품

부천병원에서 찾은 나의 멘토

불과 며칠 사이에 신체의 자유를 잃은 10대의 심정은 어떨까? 그 어느 누구도 당사자의 마음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터다. 이제 겨우 18세를 맞이한 환자 역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날이 좋은 계절이면 친구들과 땀 흘리며 농구를 즐기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이면 찬 바람을 핑계로 게임 삼매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가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됐던 것이다.

뇌수술을 마친 환자는 이후에도 두개골 성형술을 비롯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럴 때마다 황 교수는 환자

와 보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뭔가 거창한 대화나 오간 것은 아니다. 그저 흔하디흔한 수다가 전부였을 뿐이지만 환자는 황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동안 자신이 찾지 못했던 꿈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었다.

황 교수와의 대화에서 환자가 찾은 목표는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였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환자는 황 교수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학창시절 내내 틈틈이 그린 작품 역시 수준급이었다. 무엇보다 마비가 온 부분이 왼쪽이라는 사실은 차라리 기적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올해로 갓 20대를 넘긴 환자는 자신이 찾은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미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꿈을 찾은 환자의 전속 응원단을 자청하는 이는 그의 가족들이다. 어머니인 김미자 씨는 현재 남부챔버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형은 한국예술종합대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유명 첼리스트다. 평소 그리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던 가족들은 환자의 수술을 계기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한다. 사춘기 시절, 집에 오면 문을 꼭 잠그기만 하던 작은 아들은 이제 ‘엄마 껌딱지’라고 불릴 만큼 가장 친한 친구로 거듭났다. 무뚝뚝한 형도 부쩍 동생과의 통화가 늘었다. 특히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부천병원에서 자발적으로 공연을 기획하며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

‘병원 오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하는 20대 청년의 환한 미소에서 황 교수를 비롯한 부천병원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끈끈한 정과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지원단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의 숨은 조력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지원단’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경기를 벌인 ‘강릉 하키 센터’ 의료지원 맡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표팀은 17개의 메달(금 5, 은 8, 동 4)로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화제가 된 가운데,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올림픽 성공의 숨은 조력자로 활약했다.

여자아이스하키팀은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대회에 출전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함께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올림픽 기간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 지원단을 강릉 하키 센터 선수 의무실에 파견했다.

강릉 하키 센터 베뉴진료소장(VMO)을 맡은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진두지휘 하에 의료지원단은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 환자의 치료를 책임져 선수 및 관계자들이 올림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열정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지원단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낸 숨은 조력자들 덕분에 이번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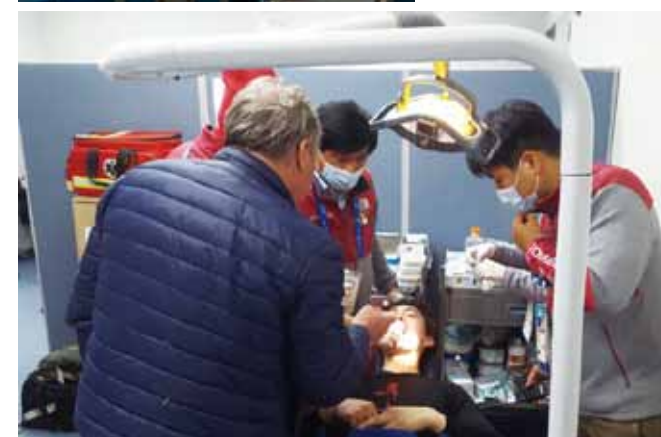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은 연습 기간이 짧았던 만큼 평창올림픽 조별 리그 경기에선 강팀들과의 실력 차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을 상대로 역사적인 올림픽 첫 골을 터트렸고, 순위 결정전에서 재대결을 펼친 스위스와 스웨덴을 상대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웅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은 “평화의 불빛을 밝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우리 병원 의료지원단이 힘을 보탤 것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단일팀이 경기를 벌인 강릉 하키 센터의 의료 지원을 우리 병원이 맡아 뜻깊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 SCH



◀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지원단이 활약한 강릉 하키 센터

▼ 남자 아이스하키 오현호 선수가 경기 중 앞니 3개가 부러져 응급 처치를 받고 있다 (우측: 김호중 응급의학과 교수).



interview

김호중 진료소장에게 듣는 한마디



김호중 강릉 하키 센터 베뉴진료소장(VMO)/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평창 동계올림픽 의료지원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다. 개인적으로 올림픽 개막 1년여를 앞두고 사전 테스트 격으로 열린 ‘2016-17 국제스키연맹(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2017 국제 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8차 대회’, ‘2017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현장 의사로 참여하면서 좀 더 많은 의료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동료 의사들과 나누고 신웅진 병원장님께도 전달했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이번 의료지원단 파견이 가능했다. 이번 인터뷰를 빌어 신웅진 병원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근무 일정을 어렵게 조정하고 개인 휴식 시간도 포기한 채 의료지원에 참여한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모두에게 고생 많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의료지원단 모두의 헌신과 희생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에 힘을 보탤으리라 믿으며, 이번 올림픽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주인공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작은 손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 보면 알아요”

설 연휴 네팔에서 인술 펼친 박병원 교수와 천사들

설 연휴, 누구나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일 것이다. 오랜만에 부모님, 가족, 친지를 만나고 고향을 찾아 인사를 나누는 최대의 명절이다. 그야말로 황금 같은 설 연휴에 사서 고생을 한 천사들이 있다. 네팔 카트만두 지역을 찾아 순천향의 인술을 전하고 온 박병원 심장내과 교수 일행의 남다른 설 연휴를 조명했다.



다일공동체에서 배식 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박병원 교수).

벌써 세 번째네요. 2016년 설 연휴하고 같은 해 11월에도 다녀왔습다. 두 번째는 한양로타리클럽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2016년에는 이동환 교수님, 이성진 교수님도 같이 가셔서 더 알차고 뜻깊은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신우화를 맡고 계신 이은철 목사님, 이번에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호흡기내과 임상강사가 되시는 장준용 선생님, 역시 내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박준병 선생님, 의료정보팀 송영심 선생님, 오순영 선생님, 그리고 곧 우리 순천향 가족이 되는 김미정 신규 간호사 선생님



네팔 카트만두
지역을 찾아
순천향의 인술을 전하고 온
박병원 심장내과 교수 일행의
남다른 설 연휴

과 함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현지에는 고연희 선생님이라고 우리 병원에서 20여 년간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 생활하신 지 14~1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남편분과 함께 버려졌던 아이들 10명을 자녀로 키우고 계세요. 최근에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가난하고 빈민촌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4박 6일 일정으로 7명이 다녀왔습니다.

첫날은 도착해서 자고 다음날부터 3일간 진료를 했습니다. 혈압, 혈당 검사 등의 검진과 내과 진료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마침 초음파기기를 대여해 가서 심장, 복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처방해 드리고, 현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증 의심 환자분들은 큰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 드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매일 200여 명 정도 진료를 한 것 같구요. 총 600여 명 정도 진료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120명 정도 했어요. 돌보기도 50개 준비하여 잘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나눠 드렸구요.

세 번째 날에는 아침마다 300여 명의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밥퍼에 찾아가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또 별도로 목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벅워머 300개와 비타민을 준비해 나눠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회적인 진료가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직접 가 보시면 그런 말 못 하실 것 같아요. 가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를 도와야 할지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이성진 선생님도 베트남 퀴논시처럼 백내장수술센터 같은 것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시고... 후원 층이 넓어지는 거죠.

이번 일정에도 우리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큰 도움 주셨는데요. 현금 후원, 사회사업팀 기금 활용 등은 물론이구요. 약제팀, 사회사업팀, 의료정보팀, 신우회 등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약제팀은 약속처방에 따른 약제를 준비해주셨고, 사회사업팀은 각종 행정절차와 나눔회 기금을 쓸 수 있게 도와 주셨습니다. 특히 의료정보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짐 싸고 포장하고 온갖 잡일들 많이 도와줘서 무사히 다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소중한 사랑 나누고 왔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지막으로 저희와 네팔의 어려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병원 만들기, 천안병원의 가슴 따뜻한 도전



천안병원의 2018년 새해 목표가 눈길을 끈다. ‘행복한 병원 만들기’.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천안병원의 새해 목표가 가슴 따뜻하게 다가온다. 천안병원이 바라보는 곳은 바로 ‘우리 순천향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병원’, ‘내가 순천향 가족임이 자랑스러운 병원’이다.

작은 병원이라면 모를까, 교직원 2천 명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인 천안병원이 과연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규모가 클수록 구성원들은 환자중심의 거대 메커니즘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 매트릭스 조직 특성상 직종 간 갈등의 소지도 높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극강의 긴장감 속에서 지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쉽다. 그러나 천안병원은 고객감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행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교직원들이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첫 걸음을 ‘좋은 관계 갖기’에서 시작하고 있다. 동료, 가족 등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과의 좋은 관계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행복이 싹틀 수 있다는 뜻에서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배려해야 한다. 즉,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랑 속에서 천안병원 교직원들은 서로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 행복이 구현되고 크기를 점점 더 키워간다면 ‘행복한 병원’과 ‘자랑스러운 병원’은 절로 이뤄질 것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는 지금 천안병원의 ‘행복한 병원 만들기’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행복의 크기는 얼마나 자랐을까?

천안병원은 새해 들어 교직원들 스스로 좋은 관계 갖기를 독려하는 가운데 다양한 행복 찾기 활동에 나섰다.

시네마
데이

동료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다

1월 30일, 천안의 한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 교직원과 가족 300여 명이 영화를 함께 보는 시네마데이 이벤트를 가졌다. 참여한 이들에게는 팝콘과 음료, 핫도그 등 푸짐한 먹거리도 한가득 제공됐다.

영화는 가슴 뭉클한 가족애를 다룬 ‘그것만이 내 세상’. 교직원들과 가족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감사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시작 전 여러 부서의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새해 인사 셀프 동영상도 상영돼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달궜다. 천안병원 시네마데이 이벤트는 3월에도 이어진다.

타임
캡슐

셀프 응원엽서 쓰기, 나에게 전하는 행복 메시지

2월 7~8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임캡슐_셀프 응원엽서 쓰기’ 행사를 열었다. 엽서를 이용해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올 연말에 그 엽서를 다시 우송받는 것.

행사를 주관한 교직원 동아리 ‘시모해’의 김효욱 교수는 “긴장의 연속인 병원 업무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셀프 응원을 통해 스스로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생애 처음 자신에게 엽서를 써 봤다는 이 모 간호사는 “늘 환자에 집중하다 잠깐이나마 나에게 집중하니 무언가 뭉클함을 느꼈다”면서, “엽서를 되반을 올해 끝자락에는 보람되고 행복한 모습의 나이고 싶다”고 말했다.

명사초청
강연

뮤지컬이 주는 창의적 사고

2월 20일,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올해 첫 명사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초청 명사는 뮤지컬 분야에서 평론, 번역, 강연 등으로 명성이 높은 원종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네마
데이



타임
캡슐



명사초청
강연



동아리
활동 지원



존중문화
캠페인



참석 교직원들은 유명 뮤지컬 작품과 뮤지컬 음악들에 얹힌 뒷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원 교수의 강연을 통해 뮤지컬에 흠뻑 매료됐다.

강연을 준비한 진료환경개선위원회 박상흠 교수는 “가끔 일상을 벗어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기는 여기활동은 삶의 활력과 행복감을 되찾아 주는데, 뮤지컬 공연 감상과 같은 문화적 향유는 작은 투자로도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여기활동”이라고 적극 추천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명사초청강연을 마련해 교직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행복 찾기를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리 활동 지원, 존중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도

이밖에도 천안병원은 각종 교직원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에 나섰으며, 교직원 상호 간 자존감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존중문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존중문화 캠페인은 ‘먼저 인사하기’, ‘존댓말 사용하기’, ‘서로 경청하기’ 등 세 가지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천안병원의 ‘행복 찾기’는 최근 젊은 세대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핫한 화두인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과도 맞아 떨어진다. 워라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다. 야근 없고,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휴가와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직장인의 삶이다. 일과 삶을 조화시키려면 ‘저녁이 있는 삶’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삶의 질보다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둔다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연중 휴무 없이 운영되는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념하며 극강의 노동 강도를 견뎌내야 하는 병원인들에게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은 어쩌면 요원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천안병원의 행복한 병원 만들기엔 더 눈길이 모아진다.

행복한 병원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천안병원 교직원들의 다양한 행복 찾기 활동들은 올해 내내 즐거차게 이어질 것이다. 워라벨에 부합된 새로운 병원인의 삶의 본보기가 천안병원 교직원들의 노력 속에서 큰 결실로 맺어지길 많은 병원인들이 주목하고 응원하고 있다.

순천향의 근본을 되돌아보다

송지영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장,
지역 주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나서다

세상 만물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모두 저마다의 근본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남동 한복판에 위치한 서울병원 역시 뚜렷한 근간을 갖고 있다. 바로 병원이 위치한 지역, 용산구가 서울병원의 시작점인 것이다. 서울병원의 사회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송지영 팀장은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뿌리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나선 그의 속사정을 들어본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고파

지난 20여 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해온 송지영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장은 병원과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에 입사한 송 팀장은 이후 혁신적인 제안으로 병원 내 사회복지문화를 크게 변화시키며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입사와 동시에 송 팀장이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서울병원의 불우환자 돕기 후원회였다. 이후 순천향나눔회로 발전했다. 오래 전부터 운영돼온 순천향나눔회는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전해주기 위한 기부를 주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초창기 순천향나눔회는 기금이나 운영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송 팀장은 “명색이 환자들을 위한 나눔회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나눔회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리고자 2004년 6월부터 운영진 조

직을 비롯해 모금후원회 개최, 비영리단체 승인 절차 개시 등 아예 모든 것을 갈아엎는다는 생각으로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이동환 교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앞장 서 주셨다고 한다. 기초적 지원을 해오던 불우환자돕기후원회는 송 팀장을 주축으로 사회사업팀이 전면에 나선 지 10여 년 만에 말 그대로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모금액, 지난 2004년 2천만 원에 불과했던 잔고는 현재 1억 5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큰 숫자가 찍혀있다.

적극적인 홍보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아진 점도 눈에 띈다. 이제는 4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까지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순천향나눔회는 정부에 정식으로 승인과정을 마친 ‘비영리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즉, 각종 기부 관련 행정절차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송 팀장은 “이제는 ‘서울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환자는 없다’는 명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더없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미 여러 환자들에게 해당 기금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후원회의 성장과 확대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병원은 한해 평균 10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약 15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억 원은 순천향나눔회의 자체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단순히 동호회 수준에 그쳤던 순천향나눔회의 과거에 비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이 모든 결과는 서울병원 구성원 전체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만, 순천향나눔회의 가치와 역할에 주목한 어느 한 사람의 결단과 우직한 추진력이 있었기에 현재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서울병원 사회사업팀, 주민과의 상생에 팔 걷어붙이다

새해 첫 달,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2011년부터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합사례분과장으로 활동해온 송 팀장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송 팀장은 서울병원이 위치한 용산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관 지역사회복지기관 협조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정책은 민·관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상호보완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송 팀장은 “쉽게 말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료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실효적

“

이제는 ‘서울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환자는 없다’는 명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더없이 큰 자부심을 느낀다.

”

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삶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고가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기존 복지지원시스템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집중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충분한 복지가 이뤄지지 못하는 까닭이다.

송 팀장은 “물론 서울병원은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을 시행해왔다”며 “하지만 지자체 복지정책과의 융합으로 각각의 장점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결심하게 됐고, 다행히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송 팀장은 의료복지 안전망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원 사업 운영을 비롯해 의료봉사활동, 임상시험심의위원, 자원봉사운영 등 지역 주민들과 나아가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송 팀장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복지 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데 그쳐야 한다”며 “다만 이를 위한 정책적·경제적·의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우리 의료인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단언컨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은 항상 옳다. 각자의 사연으로 스스로를 오롯이 홀로 책임질 수 없을 때, 다른 이가 내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은 평생토록 가슴 한 편에 각인될 터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작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서글픔이 더 말해 무엇하랴. 순천향나눔회를 통해 실질적인 병원비를 지원받은 환자들이 느꼈을 고마움의 크기가 쉬이 짐작되지 않는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기억으로 새겨질 순천향나눔회와 주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이유다.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지역 유일 초음파내시경 시설 구축 완료

주민 위한 변화와 발전은 의료인의 사명

자동차에게 연료가 필요하듯, 인간 역시 삶을 위한 음식물 섭취는 필수적이다. 소화기내과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체내 저장 및 주요 생체 활성물질의 합성 및 해독작용, 배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화기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한다. 지역 유일의 초음파내시경 시설을 갖춘 소화기내시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미병원 소화기내과의 특별한 가치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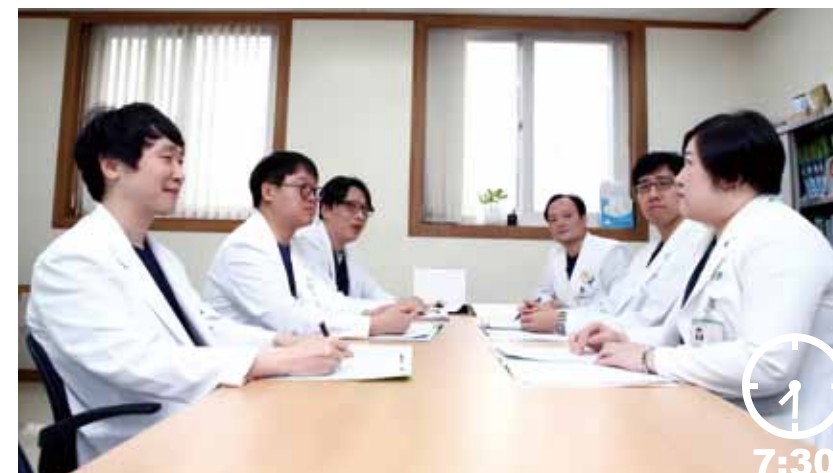


지역 유일의 초음파내시경 시설 완비,
환자만족도 100%

구미병원 소화기내과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경북 지역(대구 제외) 최초로 초음파내시경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소화기내시경센터를 새롭게 개설·운영하고 있다. 구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소화기내시경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들은 초음파내시경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소화기내시경센터 출범 이후 주민들의 편의성이 한껏 제고됐다.

김용길 구미병원 소화기내과장은 “지역 최초로 초음파내시경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로 한 목적은 결국 주민들로 귀결된다”라며 “보다 전문적인 검사를 위해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초음파내시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구미병원만의 강점이다”고 강조했다. 구미병원에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환자들의 초음파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 소화기 관련 질환을 담당하는 소화기내과의 전문성을 심분 발휘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까닭이다.

“지역 최초로
초음파내시경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로 한
목적은
결국 주민들로 귀결된다.”



박운선 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장은 “검사 및 회복을 마친 후 곧바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방침 등을 설명하는 이른바 ‘원-스톱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최소의 시간으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환자들의 만족도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총 6명으로 최근 2명이 새롭게 합류했다. 김용길 소화기내과장을 비롯해 박운선 소화기내시경센터장, 최문한·류충현·김민성·공성민 교수까지 각 분야별 전문의들이 포진해있다. 이러한 의료진 확충은 초음파내시경의 수요(환자)가 몰리며 공급(전문의)가 부족해진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만큼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및 소화기내시경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인 셈이다.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구미병원 소화기내과의 분주한 하루를 함께 한다.

AM 07:30 구미병원 소화기내과의 하루가 시작됐다. 환자로 시작해 환자로 끝나는 병원의 일상은 콘퍼런스로부터 비롯된다. 김용길 소화기내과장을 필두로 박운선 소화기내시경센터장, 최문한·류충현·김민성·공성민 교수 등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맡고 있는 환자의 특이사항을 보고하는가 하면 향후 치료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AM 8:30 최문한 교수와 이지는 간호사가 오늘의 회진을 돌기 위해 소화기 내과 병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재 입원 중인 소화기내과 환자는 총 40여 명. 최 교수는 가장 먼저 얼마 전 총감관결석의 내시경적 제거술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를 찾았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예전 기력을 너끈히 회복한 모습이다. 환자는 최 교수의 방문이 반가운지 손을 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교수는 환자의 손길과 눈길을 피하지 않고 편안한 어투로 현재 몸 상태와 향후 치료 계획 및 퇴원 일정 등을 설명했다.



AM 09:00 김용길 과장의 외래진료가 열렸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화기내과 분야의 특성 때문인지, 하루 평균 30~40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신청한다. 특히 지역에 생산단지가 밀집해 있는 까닭에 중증 단체로 장염이나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이 몰려올 때면 100여 명을 훌쩍 넘는 일도 있다. 오늘의 첫 환자는 간 질환을 앓는 40대 남성이다. 다소 젊은 나이에 간 질환 판정을 받은 환자는 다소 풀이 죽은 상태였다. 김 과장은 검사결과를 살펴본 후 환자에게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한편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완치에 대한 확신을 가진 환자는 김 과장에게 성실하게 치료에 임할 것이란 뜻을 전하며 표표히 자리를 떠났다.



AM 10:00 구미병원 소화기내과의 자람이자 자부심인 소화기내시경센터에는 분주함이 가득하다. 아마 병원 내에서 가장 분주한 곳을 꼽으라면 소화기내시경센터는 단연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이 틀림없으리라. 총 8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인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는 모든 분과의 초음파내시경검사를 전담하고 있다. 하루 평균 80명 이상의 환자가 검사를 받는 까닭에 소화기내시경센터의 하루는 말 그대로 눈이 팽팽 돌 만큼 바쁘기 그지없다. 소화기내시경센터의 창립멤버인 이옥희 주임간호사는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초음파내시경검사를 위해 모든 환자들에게 일일이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PM 1:00 점심식사 시간이 훌쩍 지난 때이지만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여전히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하다. 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의 강점은 4명의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모든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미병원에서는 검사부터 진단, 그 외 의료적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소화기내시경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박윤선 센터장이 70대 남성 환자의 초음파내시경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환자는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다시 박 센터장에게 상담을 받았다. 검사부터 결과까지 한 공간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미병원 내시경센터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PM 2:40 박다솔·정성희 간호사가 환자들의 오후 관리에 들어갔다. 두 간호사는 얼마 전 장염으로 입원한 50세 남성 환자의 링거를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교체했다. 소화기내과병동 환자는 대부분 장염이나 간 질환 등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증상이 호전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있는 상태다. 반대로 말하면 병동 간호사들의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에 내과병동을 이끌고 있는 최미자 수간호사는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PM 3:50 구미병원 소화기내과의 또 다른 강점, 바로 국내 최고 수준의 내시경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화기내과에서는 대부분의 수술을 내시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구미병원의 경우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의료진과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류충현 교수가 50대 남성 환자의 담석을 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하고 있다. 

 mini INTERVIEW



김용길
소화기내과장

'경북 최고의소화기내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구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인 까닭에 많은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의학지식을 보유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비교한 뒤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며, 환자의 권리의식 또한 대단히 향상돼 있는 것이죠. 구미병원 소화기내과는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췌담도, 간 등 4가지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6명의 전문의가 나누어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거친 전문 간호사가 외래와 병실, 내시경 센터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꾸준히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최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친절하고도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역시 순천항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순천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또한 경북 최고의 소화기내과 기관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박윤선
소화기내시경
센터장

'지역 최고의 소화기내과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

지난 2014년 3월, 새롭게 문을 연 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는 6개의 독립된 룸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부위장관내시경실, 대장내시경실, 초음파내시경실 등 모든 내시경 관련 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특히 지역 유일의 초음파내시경 장비를 구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적인 보강과 함께 환자를 위해 진료부터 진단, 내시경적 치료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소화기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에 맞춤형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관 출혈과 이물질 제거 등 응급 상황 내시경 검사를 대비해 이른바 '응급 골 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환자들은 언제든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최고의 소화기내과의 선도병원으로서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와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이옥희
주임간호사

'지역 주민과의 상생 행보 계속할 것'

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출범 전까지는 지역 내에는 관련 전문시설이 전무했습니다. 특히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초음파내시경 시설 및 장비는 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가 유일합니다. 즉 구미병원이 초음파내시경을 도입할 때까지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현재 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의 하루 평균 환자는 80명 이상에 이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다는 의미겠죠. 때문에 우리 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구성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상생 행보를 함께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의료인이기에 앞서 구미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최미자
내과병동
수간호사

'특별한 사명감, 우리가 잇는 이유'

소화기내과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불편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악화된 상태가 때문에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하죠. 중증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소화기내과병동 간호사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간호사 역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소화기내과병동의 모든 간호사들은 항상 잇는 얼굴로 환자들을 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저 흔한 미소일 뿐이라도 환자들의 입장에서 큰 힘이 되는 까닭입니다. '가끔은 한 박자 쉬어가면 어떡하리'. 힘들거 때면 서로 농담처럼 읊조리는 말입니다. 항상 환한 미소로 환자들을 대하는 즐거운 구미병원 소화기내과병동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친 신체 부위, 무조건 도려내야 할까?

‘잔유조직 보존 술식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주목하라
권세원 천안병원 정형외과 교수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섬유성 결합 조직, 바로 ‘인대’다.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인대는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다친 경험이 있을 만큼 흔한 부상부위 중 하나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훈련 또는 경기 도중 종종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때 선수들이 받는 수술이 바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파열된 인대는 꼭 제거해야 하는가? 권세원 천안병원 정형외과 교수에게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본다.

멸절한 조직까지 들어내는 것은 ‘과유불급’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종종 ‘우리의 신체는 소모품이다’라는 해설이 들리곤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한 적당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지나친 움직임은 신체의 기능을 빠르게 퇴화시킬 뿐이다. 예기치 않은 사고 역시 위협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한 번 손상된 신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발생하는 십자인대파열은 자칫 은퇴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하기 그지없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의학기술의 발달로 성공적인 수술을 전제로 선수로 복귀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재활기간이 길고 과정이 힘든 탓에 환자 본인의 굳건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천안병원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잔유조직 보존 술식’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하 잔유조직 보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새롭게 각광받으며 환자들의 재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은 물론 긍정적인 예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잔유조직 보존 십자인대 재건술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권세원 천안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간 수술적인 기법과 과학에 근거한 재활 요법의 발전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성공률과 환자 만족도 역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의사들은 대체로 기존의 시술법을 고집하거나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회전불안정성을 호소하는 경우가 2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정형외과 관절센터 의료진들은 오래 전부터 잔유조직 보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임상적 우수성에 주목해왔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을 병행한 결과 잔유조직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기존 수술법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손상을 당한 부위를 포함해 잔유조직(남아 있는 인대 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 재건술을 시행해왔다. 쉽게 말해 ‘멸절한 신체조직’마저도 모두 도려낸 후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인대를 재건한 것이다. 반면, 잔유조직 보존 십자인대 재건술은 아직 기능이 유효한 조직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둔다. 수십 년 동안 특정 신체 부위에서 작동해온 조직이 해당 부분에 최적화돼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일 터다.

권 교수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 몸의 자세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기계적 수용체가 전방십자인대의 잔유조직 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보다는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잔유조직을 보존하면서 인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이병일 서울병원 교수와 오랫동안 연구와 임상을 함께 병행하며 다수의 관련 SCI급 논문을 게재했으며, 국제 의료계 역시 잔유조직 보존 십자인대 재건술의 실효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천안병원의 특화 수술인 잔유조직 보존 십자인대 재건술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며, 기존 수술에 비해 무조건 좋은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모두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완치가 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권 교수는 “현재 천안병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잔유조직 보존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를 수치로 표현하면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자신한다”라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연구·개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친 신체의 복원, 의료진과 환자의 2인 3각이 중요해

권 교수는 지난 2007년 천안병원 부임 이후 지금까지 ▲인공관절 1000

“수술은 어디까지나 신체의 기능을 초기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수술 이후 신체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건 재활을 얼마만큼 성실히 임했느냐에 따라 결정난다.”

권 ▲십자인대 재건술 700건 ▲각종 부상에 대한 관절경 수술 3500건 등을 집도하며 수술 현장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그만큼 많은 환자들의 사후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수술은 어디까지나 신체의 기능을 초기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수술 이후 신체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건 재활을 얼마만큼 성실히 임했느냐에 따라 결정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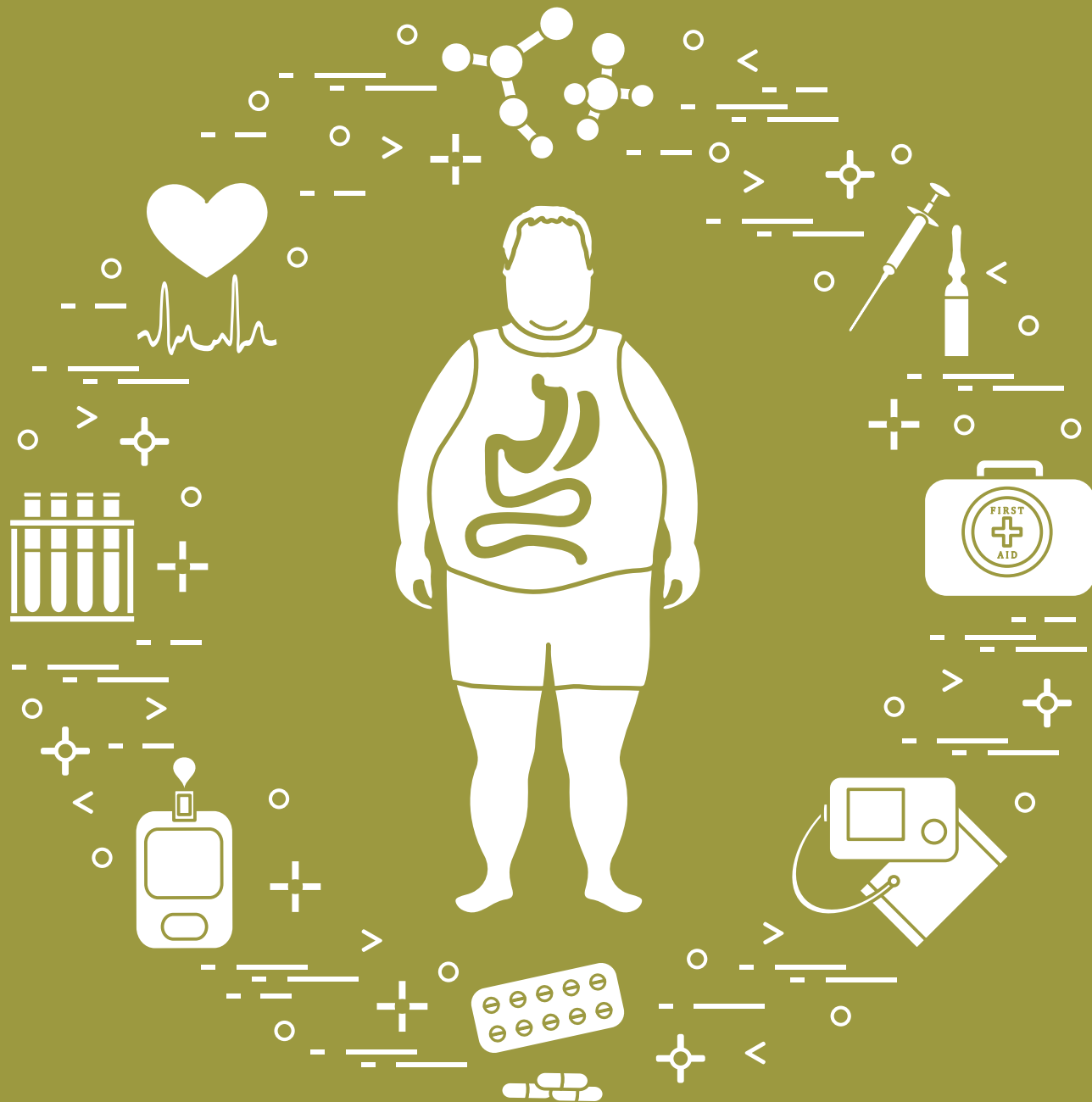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대로 관절과 인대 수술의 경우 오랜 재활과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들의 재활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그 기간이 길고 매우 힘들다.

권 교수는 “환자의 현재 몸 상태는 해당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가 잘 알 수 있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수술을 마친 환자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면담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짜주고 있다”라며 “또한 길고 지루한 재활과정에 환자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치어리더’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너스레를 떨어보였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권 교수는 외모와는 달리 지독스러울 만큼 꼼꼼하고 세심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인공관절과 같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에서 감염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텁고 불편한 우주복이라 불리는 전신 무균복을 전 수술진이 착용하고 무균수술을 집도할 정도니 환자에 대한 예의만큼은 국내 최고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리라. 최근에는 관절 연골 부상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호소에 따라 보다 진일보된 새로운 관절 연골 재생술 개발을 목적으로 주경야독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발전을 위한 팍방울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은 차라리 송고하기까지 하다.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밤을 낮 삼아 연구에 매진하는 권 교수의 뜨거운 열정에서 계절을 뛰어넘는 한여름 더위를 느낄 수 있었다. 

‘비만수술’ 암 발병률 감소, 장기 생존률 증가



김용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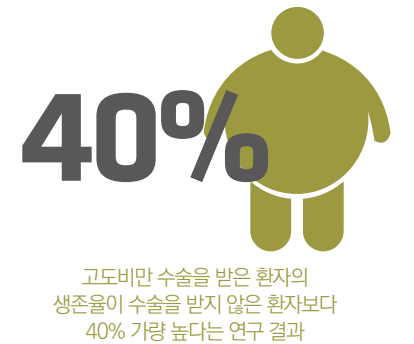
금년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하나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보험혜택을 주는 것이다.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은 이미 비만을 사회문제로 보고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의학적으로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도비만 환자들 중 상당수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앓고 있어 이를 치료하는 약 값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반면, 고도비만 수술은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약 값을 아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고도비만 수술의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고도비만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을 없애거나 완화해 준다. 살이 빠지는 효과도 있지만 성인병이 완화된 환자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실제 고도비만 수술을 많이 하는 선진국에서 고도비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40%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최근 연구에는 사망률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의 사립회지에 실린 자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내용이 실렸다. 지난 10년간 13편의 대규모 연구결과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도비만 수술 후 사망률 감소와 관련한 연구들의 주된 결론은 암 발병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비만과 연관성이 뚜렷한 13가지 암을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해 발표했다. 비만과 관련이 있는 암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만과 관련이 없는 암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체중의 대조군에 비해 비만수



술을 받은 군의 사망률이 감소했는데, 심혈관계 합병증 다음으로 암 발병이 감소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술 같은 미용 성형시술과는 전혀 다르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 위 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1993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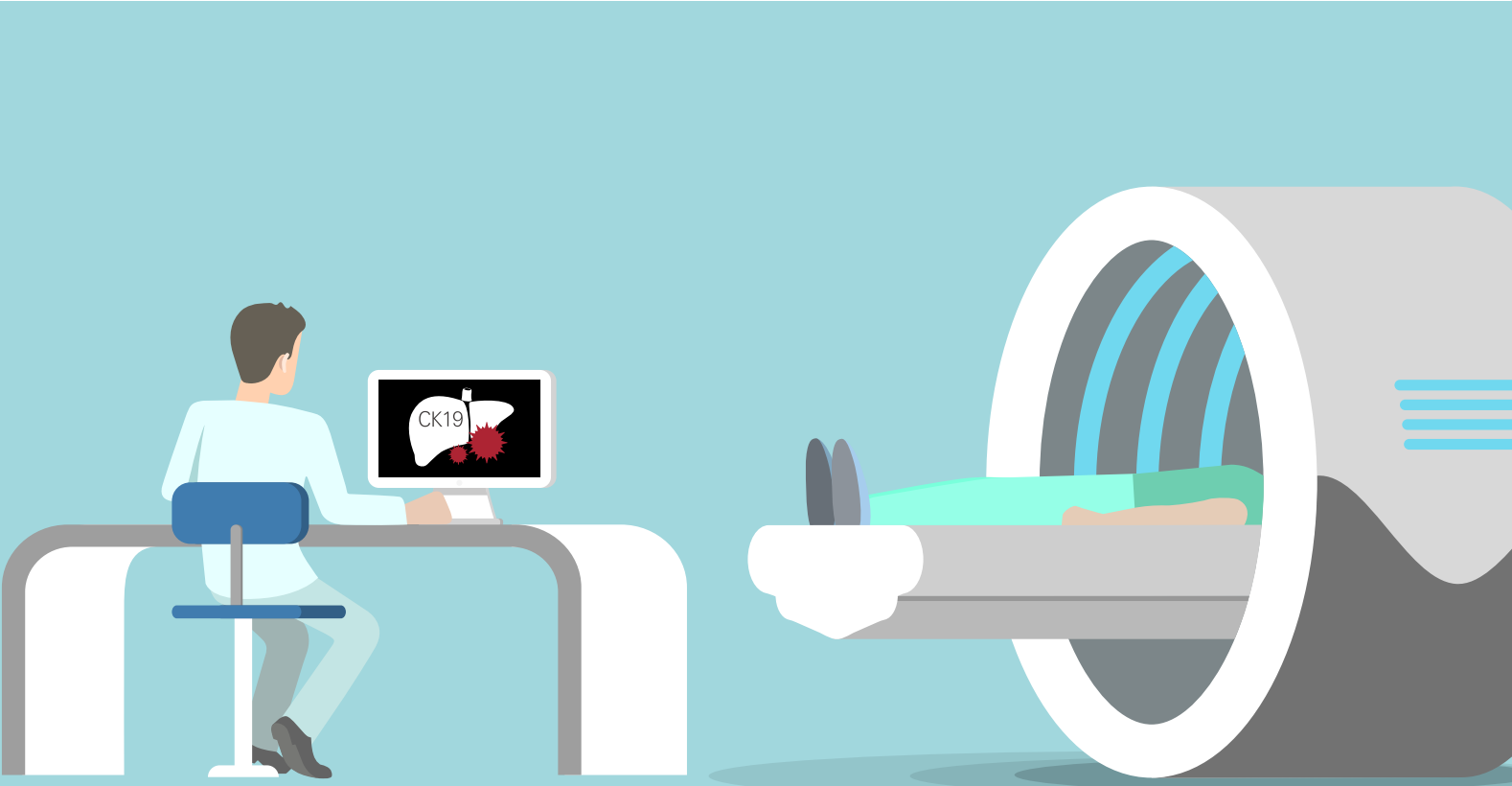
고도비만 수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는 맹장수술보다 흔한 수술이고, 절제수술은 1시간 정도면 된다. 수술 받으면 평균 30% 정도 체중이 감량되고 각종 합병증도 줄어든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 SCH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간세포암의 CK19 발현 여부 예측 가능하다

환자 예후 및 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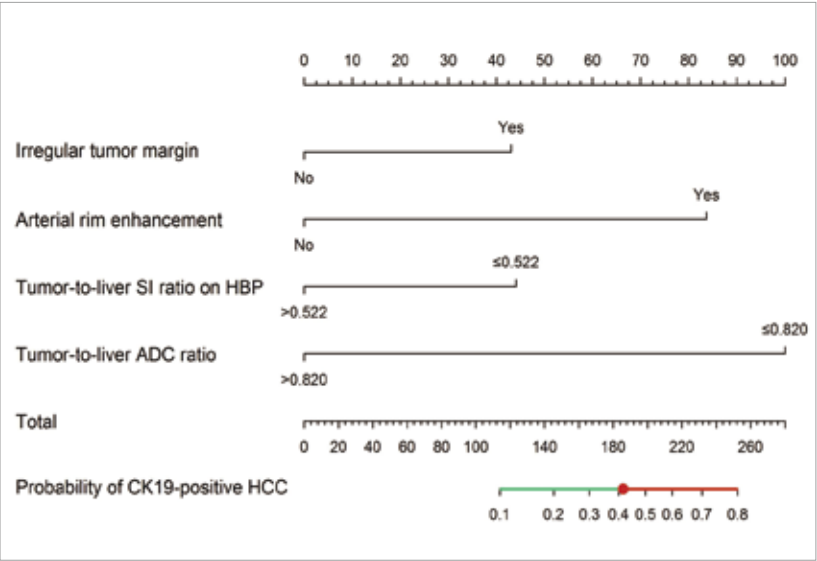
최서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간세포암(이하 간암)은 간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원발성 종양의 85~90%를 차지한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암이며, 이 중 간암이 폐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암질환으로 분류되었다. 간암은 임상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하며 치료방법으로는 간이식, 외과적 절제술,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간암 조직을 제거하더라도 빈번한 재발 및 전이로 인해 생존율이 높지 않다. 간암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암세포의 모양이나 표지자(surface marker) 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간암이 간암 줄기세포로부터 발생하고, 간암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들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이다.

간세포암의 CK19 발현가능성 예측을 위한 노모그램 (nomogram)



줄기세포는 자신과 동일한 세포를 무제한 만들어내는 자기재생(self-renewal)능력과 다양한 세포로 분화(differentiation)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한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의 재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세포라고 할 수 있다. 간 전구세포(hepatic progenitor cell)는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정상 줄기세포 중 하나로, 자기재생 능력과 함께 간세포와 담관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CD34, c-kit, AFP, CK7, CK19 같은 여러 가지 표지자들을 발현한다. 이러한 간 전구세포들이 간암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중 담관세포의 분화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CK7과 CK19를 발현하는 간암은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최서연 교수 연구팀은 이 중 간암의 독립적 예후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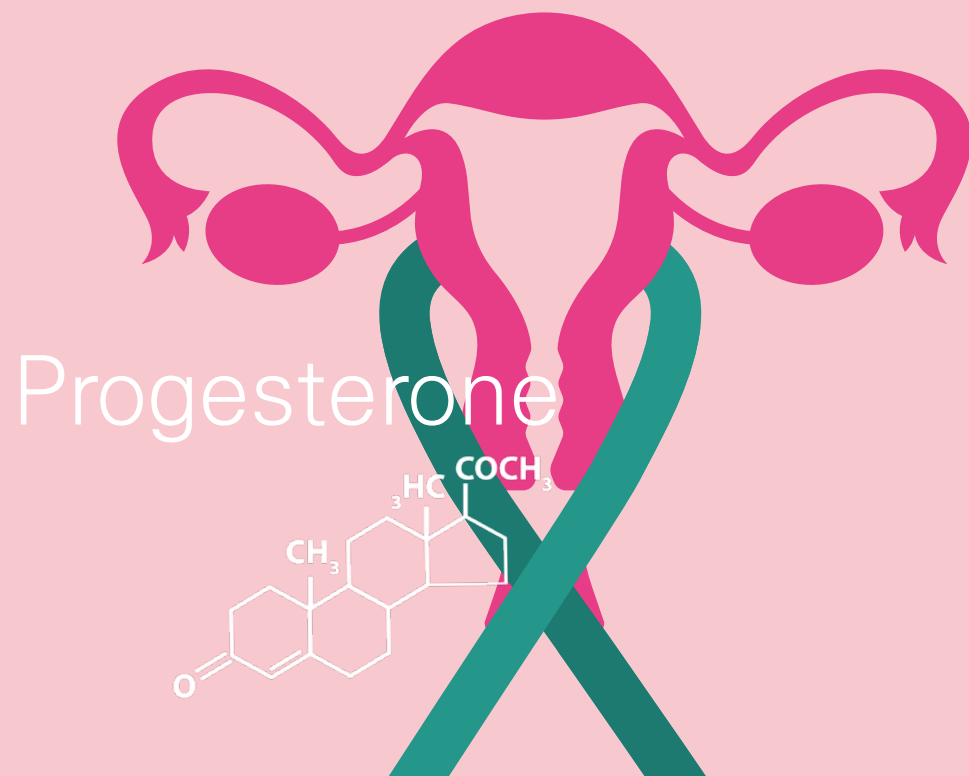
로 알려져 있는 CK19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치료 전, 간암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MRI(자기공명영상) 소견을 통해 간암의 CK19 발현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CK19 발현 양성 간암의 경우는 CK19 발현 음성 간암에 비하여 더욱 불량한 예후를 보이고, 수술적 절제 후 재발이나 전이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이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 MRI 소견에서 간암이 불규칙한 종양의 경계, 동맥기 환형 조영증강(rim enhancement), 종양의 낮은 간담도기 신호 (hepatobiliary phase signal intensity), 종양의 낮은 기확산 계수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를 보일 때 CK19가 발현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변수들을 조합하여 예측한 CK19 발현 정확도는 약 90%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MRI 소견들은 환자의 재발률과도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인용도 1위인 국제학술지 'Radiology'에 게재됐다.

최서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의 치료 전 단계에서 조직을 얻지 않은 경우라도 MRI 검사를 통해 종양의 CK19 발현 여부뿐 아니라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궁내막증식증 치료의 최신지견

자궁내막암의 전 단계인 자궁내막증식증의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궁내막증과 최근 변경된 분류법과 치료법을 알아보자.



증가하는 자궁내막증식증

여성의 자궁내막은 생리, 임신 등 많은 기능을 담당한다. 생리(월경)는 보통 1개월에 한 번 씩 진행되는 데 두꺼워진 자궁내막이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피의 형태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초경을 시작하고, 52세까지 생리를 하는데 폐경 약 5년 전부터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비정상적 생리 양상 보이면 의심

초경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후 폐경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생리가 3개월 이상 없거나, ▲출혈이 2주 이상 길게 이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생리 형태를 보일 경우엔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 자궁내막증식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리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자궁내막이 두꺼워졌다가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자궁내막이 얇아지는 것인데 자궁내막증식증은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은 폐경 전후 5년 이내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최근 10대 후반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리 날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폐경 오인 쉽고, 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자궁내막증식증은 재발이 잦고, 자궁내막암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다. 비정형을 동반하지 않은 양성 자궁내막증식증의 경우 5% 미만, 비정형을 동반한 자궁내막증식증의 경우 10~20%가 자궁내막암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서도 자궁내막암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비정형을 동반하지 않은 양성 자궁내막증식증은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생리가 3개월 이상 없는 경우 폐경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분류법 개정

자궁내막증식증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 후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고, 프로제스테론을 사용해 자궁내막을 얇게 만드는 치료를 실시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은 현미경적 소견에 따라 분류된다. 그동안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분류법이 사용되다가 2014년에 WHO 분류법이 개정(비정형을 동반하지 않은 양성 자궁내막증식증과 비정형을 동반한 자궁내막증식증)되었으며 이에 따라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법도 바뀌어

2016년 2월, 영국의 왕립산부인과학회(RCOG)와 영국산부인과복강경학회(BSGE)에서 발표한 Green-top Guideline No. 67에 따르면 비정형을 동반하지 않은 양성 자궁내막증식증의 치료법이 다소 변경되었다. 변경 전에는 1차 치료에 3개월 동안 경구 프로제스테론 10~20mg을 주기적으로 사용(1개월 중 21일간 복용 후 7일 휴약) 후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재발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변경된 치료법은 '프로제스테론 연속요법'과 '특수 루프인 미레나를 이용한 치료법' 등 두 가지다. 프로제스테론 연속요법은 약제 투여기간을 길게 설정해 6개월간 휴약기 없이 프로제스테론 10~20mg을 복용 후 병변이 2회 연속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간격으로



김윤숙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 교수



미레나

로 자궁내막 소파수술을 해주는 것이다. 특수 루프 미레나를 이용한 치료법은 미레나(레보노게스트렐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자궁 내 피임 장치)를 바로 삽입하고 6개월 간격으로 자궁내막 소파수술을 하는 방법이다. 비정형을 동반한 자궁내막증식증의 치료는 향후 분만 계획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환자가 분만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자궁적출수술이 시행되고, 분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량의 프로제스테론 치료법과 특수 루프 미레나 삽입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종전의 방법을 유지한다. 



글 김현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

대장내시경 ‘장 정결 동영상’ 교육 효과 만점, 노령 수검자에 도움

대장암 예방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을 잘 비우는 장 정결 과정이 중요하다. 보통은 대장내시경 검사 예약 시 장을 비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나눠 주지만, 최근에는 동영상 교육을 병행해 장 정결도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팀은 장 정결제 복용에 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총 283명을 전향적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통상적인 교육만 받은 그룹과 동영상 교육을 병행한 그룹으로 나눠 장 정결 정도와 만족도를 측정했다.

A 그룹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장내시경을 예약할 때 전문 간호사의 설명과 정결 방법 안내문으로 교육을 하였고, B 그룹은 통상적인 교육 후 대장내시경 3일 전과 1일 전에 교육동영상이 링크된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동영상상을 보게 했다.

검사 당일에는 대장내시경 시행 전에 교육 내용의 이해와 준수 여부, 교육 만족도에 대한 문을 진행했다. 검사 진행 중에는 보스톤 장 정결 평가 척도(BBPS)를 이용해 두 그룹 간의 장 정결상태를 비교·분석했다.

평가 결과 A 그룹은 9점 만점에 평균 6.29점을 받았고, B 그룹은 7.53점을 받아 동영상 시청 그룹인 B 그룹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장 정결이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준수도와 만족도 역시 동영상 시청 그룹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김현건 교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 정결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이미 보고가 되고 있다” 며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문자 메시지만 클릭하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검사 일정상 대기 기간이 길 때 쉽게 다시 볼 수도 있고, 노령의 수검자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공식저널인 ‘Gastrointestinal Endoscopy’ [저널영향력지수(impact factor) 6.501] 에 ‘대장내시경 시행 전 장 정결 정도에 미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의 효과: 전향적무작위배정 단일 맹검 연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는 2015년부터 장 정결제 종류별로 4편의 교육 동영상상을 자체 제작, 활용하여 수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SGI



글 이철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 교수

생후 2~3주의 아이가 반복적으로 구토를 한다면 ‘비후성 유문 협착증’ 의심해봐야

임신 기간 동안 별문제 없이 지내다가 건강하게 출산한 아기가 생후 한 달도 채 안 되었는데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유 탓인가 하는 생각도 하며 상태를 지켜보는데, 구토가 멈추기는커녕 더 많이 자주 토하고, 분수처럼 뿜는다. 먹으면 토하는 데 아이는 울면서 또 먹으려 하고, 괜찮아졌나 싶어 또 먹여보면 다시 토하고, 구토의 횟수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 엄마,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부모의 입장에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닐 것이다.

무엇이 원인이고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질환은 ‘비후성 유문 협착증’이다.

비후성 유문 협착증은 위 일부분인 유문근이 두꺼워져 신생아가 먹은 우유나 모유가 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구토하는 질환이다.

보통 생후 2~3주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심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토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특히 수유 직후에는 담즙이 섞이지 않은 구토를 분수처럼 분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는 자주 먹으려 하지만 영양섭취가 안 되어 체중도 제대로 늘지 않는다.

진단은 위상복부의 촉진으로 올리브 모양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다. 최근에는

초음파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단된다. 초음파로 유문부위 두께와 길이를 확인하는데, 초음파로도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복부조영검사로 확진하기도 한다.

발생 빈도는 신생아 1,000명당 2~3명의 비율로 발생하며, 남아가 여아보다 4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후성 유문 협착증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응급상황이기는 하지만, 소아외과적 응급이라기보다는 내과적인 응급상황이다. 먼저 반복되는 구토로 인하여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 전해질 교정을 해주어야 하며, 구토로 인한 탈수가 심할 경우 충분한 수액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충분히 수액공급이 되고 전해질 교정이 되면 비로소 수술을 시행한다.

과거에는 위상복부에 수평으로 피부절개를 하거나 배꼽 위로 반원을 그려 피부절개를 하는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배꼽 부위와 복부에 작은 구멍만 내어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시행한다. 수술은 유문 부위에 두꺼워진 근육층을 절개하여 점막층과 점막하층만 남긴다.

작은 구멍만 내어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만큼 회복은 빠르다. 빠르면 수술 다음날 퇴원하기도 하며, 대부분 별다른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건강하게 태어난 생후 한 달 이내의 아이가 자주 토하는데 먹으려 하고, 구토로 인해 처지는 증상을 보이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 소아과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를 진료를 받아야 한다. ■ SCH





글 김정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피부과 교수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청소년기 여드름의 올바른 치료법

흔히 여드름을 사춘기와 젊음의 상징이라면서 일시적인 생리현상쯤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드름을 쉽게 보고 어설픈게 자가 치료할 경우 흉반, 부종, 염증 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0대 여드름의 대표적인 원인은 호르몬의 영향이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도 여드름 유발 원인이다. 사춘기에는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모공을 막고, 과다 분비된 피지가 모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면포가 나타난다. 면포는 여드름의 초기 증상이다. 면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모낭 내에 상주하는 여드름균이 염증을 일으켜 붉은 구진성 여드름, 붉은 화농성 여드름, 결절, 낭종 등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염증성 여드름이 크고 깊게 생기는 경우에 여드름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 면포단계에서 피부과를 찾으면 압출치료를 통해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여드름은 증상에 따라 짜내는 압출치료, 피지와 각질을 개선하는 피부 스케일링 등으로 치료한다. 여드름 재발이 잦다면 광감각제와 레이저를 이용한 PDT치료를 시행해 피지선을 파괴함으로써 피지 분비를 줄여준다.

붉거나 거무스름한 여드름 자국에는 브이빔 레이저와 레이저 토닝이 도움이 된다. 브이빔 레이저는 여드름 뿐 아니라 안면홍조, 혈관 확장 등 복합적인 피부 트러블

에도 효과적이다. 시술 중에 강력한 냉각장치로 피부를 보호하므로 통증이 적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숙련된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부작용 예방이 가능하다. 여드름 흉터의 경우에는 패인 부위에 새 살이 차오르도록 돕는 치료가 효과적이데, 주로 프락셔널 레이저를 사용한다. 치료 후에는 새로운 정상 세포가 재생되어 흉터는 물론 모공, 피부탄력, 피부톤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 또한 화학적인 흉터 복원술인 CROSS 요법도 시도해볼 수 있다. 여드름은 초기에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피부 질환이다. 그러나 잘못 다루면 흉터와 자국이 남는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면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아래 잘 치료해야 한다.

여드름은 가급적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손톱 등으로 짜거나 긁는 행동은 세균을 침투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마찰과 자극이 붉은 자국을 만들 수 있다. 땀, 노폐물, 먼지, 색조화장 잔여물 등의 각종 유해물질은 피지와 뒤엉켜 모공을 막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특히 메이크업과 색조화장을 피해야 한다. 과도한 세안은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극이 적고 피지를 잘 배출시키는 여드름 전용 세안제로 세안 후 저자극 보습제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 밤에는 피지분비량이 증가할뿐더러 충분히 잠을 자야 피부재생 능력이 유지된다. 또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삼가고, 비타민, 엽록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글 황재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신경외과 교수

허리 통증에 대한 이해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후 유증 등 무수히 많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허리 통증이다.

허리는 갈빗대 아래에서 엉덩이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지칭하며 허리 통증은 척추, 디스크, 관절, 인대, 신경 등의 기능 이상 및 밸런스 장애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경노동자보다 중노동자에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리 통증에 대한 위험 인자로는 스트레스,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 흡연, 복부비만, 허리 외상 및 수술 기왕력 등이 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등 부위나 골반 부위의 통증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도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 하지의 통증 및 이상 감각, 근력 저하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전자의 경우 근골격계의 역학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인을 찾아서 개선해주는 방향의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근막통증 증후군이나 허리 염좌의 경우 밸런스 장애 및 과도한 운동 등이 원인이므로 휴식 및 소염제, 물리치료 등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CT나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절대 안정 및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등을 이용하여 척추체를 안정화한 후 외상을 피하고 골다공증과 같은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 하지부위의 이상 증상일 때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 압박 여부 확인이 우선 중요하며 하지 직거상 검사와 같은 이학적 검사 및 CT 혹은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와 필요시 근전도 검사 등을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진단 이후 그에 따른 약물치료,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물리치료, 견인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통해 신경 압박부위의 감압 및 안정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 금연, 운동, 자세교정, 낮은 신발, 물건을 들 때 무릎 구부리기, 수면 시 매트리스를 사용, 옆으로 잘 때 무릎 사이에, 바로 누워 잘 때 오금 밑에 베개를 고이는 게 좋다. 허리에 좋은 운동은 요가, 평지 걷기, 조깅, 수영 등이 있으며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은 등산 및 계단을 오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허리가 아프다고 반드시 골절 또는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일 이상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양상의 통증이 있다면 척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천안 의료계 성장과 발전의 주춧돌 되길

이승주 천안드림이비인후과 원장,
‘지역 주민에게 받은 사랑 되돌려 줄 것’

올해로 25년 째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이승주 천안드림이비인후과 원장은 주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동네 주치의’로 유명하다. 대지에 굳건히 뿌리 내린 거목처럼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환자와 지역의 의료발전에 최선을 다한 끝에 받아든 성적표인 셈이다. 그가 의료인으로서 짊어진 숙명의 실체를 확인한다.

환자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순천향의대 3회 졸업생인 이승주 천안드림이비인후과 원장이 천안에 등지를 튼 지 어느새 25년이 흘렀다. 지난 1994년, 고향인 천안에서 첫 개원을 한 이 원장은 이후 지역 의료계의 발전과 성장에 앞장서왔다. 1998년 천안시 의사협회 기획이사를 시작으로 감사, 총무이사, 부회장, 제 22대, 23대 천안시의사회장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충청남도 의사회 부회장, 천안의료원 상임이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지역 의료계의 저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은 “내가 의사로서 살아갈 터전을 제공해준 천안의 의료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역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사명이다”라며 “주민들이 편하고 당연히 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비인후과에서 1990년부터 약 4년 동안 근무하며 수천 건 이상의 관련 수술을 직접 시행한 이 원장은 환자들 사이에서 코 질환의 권위자로 정평이 나있다. 현재 운영 중인 천안드림이비인후과 역시 코 질환 및 질병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찾아온다. 이 원장의 전문 수술 분야는 비중격수술과 부비동염(축농증), 비염 등으로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다.

이 원장은 “사실 개업 당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라며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므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개원을 결심했을 때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추기로 결심했다. 그의 개원 목적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흔하디흔한 ‘동네병원’일지라도 그 안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대학병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이 원장의 기본 좋은 고집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비인후과 관련 학회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부단한 자기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이 원장의 신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원장은 “개원에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동네 의사아저씨로 인식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나 개인은 물론 천안 지역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믿음, 깨뜨리지 않을 것

이 원장은 학창시절 소위 말하는 모범생은 아니었다. 물론 성적이 나빴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원장은 유독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굳이 순천향 의대 동문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가 졸업한 천안의 명문인 복일고등학교의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에 대한 방증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원장은 “내가 만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귀찮은 일을 떠넘긴 것뿐이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내가 동문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순천향의대 동문들과의 사이도 각별하다. 특히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는 자주 만남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시작점이 바로 순천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은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언제나 기분 좋은 법이다”라며 “내 근본이 항상 순천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인연들이다”고 전했다.

순천향 동문과의 인연이 단순한 친목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원장은 천안 지역 동문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의료봉사는 물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과 믿음을 되돌려주겠다는 의미다. 동문들 역시 이 원장의 뜻에 크게 호응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이 원장은 “해외와 같은 먼 곳으로의 의료봉사도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천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상 그 어떤 나무도 대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 자신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못할 터다. 자신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평생의 목표라는 이 원장의 의료철학이 성큼 다가오는 이유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언제나 기분 좋은 법이며
내 근본이 항상 순천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인연들이다.”



제82회 의사국가고시 지원

2018년 1월 9일과 10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제35기 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가 서울 잠실고등학교에서 있었다. 의대동창회에서는 후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버스 대여비, 도시락, 손난로 등 250만 원을 지원했다. 6년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00% 합격을 기원했다.



제35회 졸업생 환송회

2018년 2월 6일(화) 오후 6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에서 제35회 졸업생 환송회가 열렸다. 의대동창회에서는 동창회장을 대신하여 조영덕 사무총장(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이 참석해 박태흠 졸업생에게 동창회장을 수여했다. 부상으로 아이패드를 수여했다.



2018 정기총회 개최

2018년 2월 22일, 서울병원 CEO강의실에서 2018순천향의대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의 동창회 사업 경과 보고, 순의대상, 학술상 시상식, 동창회 관련 재정현황 보고 및 발전기금 결산보고,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신입생 대표(35기 류봉규)의 인사도 있었다. 올해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순의대상
수상자

이승주(3회)
드림이비인후과의원
(천안 소재)

학술상
수상자

장재영(10회)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학술상
수상자

이시형(27회)
부천병원
안과 조교수



글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초기 대응의 중요성,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신생아 사망 사건, 간호사의 태움 문화... 최근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논란이 크게 번지기 전, 병원에서의 초기 대응이 아쉬운 사건이기도 하다.

신생아 사망 건은 지난해 12월 16일 토요일에 발생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은 신생아 사망 사태와 관련해 2월 8일해야 유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54일 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늦었던 것일까? 신생아 사망 사태 5일 뒤인 12월 20일, 병원 측은 유족들과 첫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당시 유족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 사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병원은 언론과 먼저 접촉을 했고 이에 유족들은 분노했다. 더구나 첫 간담회 때 담당 의사 등이 빠지는 등 유가족 마음을 쓰다듬는 대응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서로 간의 갈등만 확인하고 30분 만에 깨졌다.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언론은 연일 신생아 사망 건을 보도했다. 일간지 특성상 이러한 사건은 '엠바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취재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 또 질병관리본부 가 연말에 주사제 내 시트로박트 프룬디균 검출 결과의 발표가 있자 당시 신생아에게 투입된 '스모프리피드'라는 지질 영양제에 대한 취재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신생아 사망 주사제는 미국 FDA에서 '사망 위험' 경고 약품이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을 심화시켰다. 당시 이러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했던 필자는 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개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는 사이 2월 15일,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태움이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던 신입 간호사가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명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투신한 사건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괴롭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라 오히려 더 신중하게 교육했다"고 해명하면서 무마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투신 간호사 남자친구가 SNS에서 '태움'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올렸고 이러한 사실이 널리 퍼지면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여기에 더 논란을 가세한 것은 대한간호사협회의 발표였다. 협회가 내부 현실을 폭로한 것이다. 즉 협회가 간호사 7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흔한 태움 유형은 △고함파고 폭언(62.7%) △협박이나 안 좋은 소문 퍼뜨리기(47%) △비웃음거리로 삼기(44.5%·중복 응답) 순이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신생아 사건과는 달리 간호사 건은 SNS에서를 통해 사건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이를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다만 초기에 간호사의 문제로만 돌리지 말고 태움이라는 문화가 병원 내부엔 없었는지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위해 어떤 것을 하겠다는 등의 대응이 적극적인 모습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최근엔 '미투 운동'이 문화계, 연극계, 영화계를 휩쓸고 있다. 진주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한 방송사에 나와 2010년에 벌어진 성희롱 피해사건을 폭로하면서부터다. 고은, 이운택 등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투와 신생아 사망 건, 간호사 투신 건 등 모든 사건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가해자만 몇 명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사건들이다. 한동안 시끄럽다가 금방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중장년층이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

비타민A·D, 철분 섭취해 '활력 충전'

사업가 이모(57)씨는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날이 거의 없다. 출근하기 바빠 아침은 빵으로 떼우고,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은 훌쩍 지나기 일쑤다. 오후에는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허기를 달랜 뒤 저녁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즐긴다. 그러나 이씨는 최근 자꾸만 피곤하고 눈가가 떨렸다. 건강검진에서 큰 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씨와 상담한 의사는 "비타민 같은 필요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라며 "나이가 들면 식사를 제대

로 해도 영양소 흡수가 잘 안되는데, 식사에 소홀하면 몸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더 쉽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은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쉽다. 세끼 식사를 균형있게 섭취하고, 유제품·녹황색 채소·콩 등의 간식으로 영양소를 보충하면 좋다. 종합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노화로 식사량 줄고
소화·흡수 어려워

영양 불균형 되기 쉬운
영양소

간식·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해야

중장년층은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쉽다. 이씨처럼 바쁜 일상이 습관이 되거나, 나이가 들수록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고, 저작·연하 기능이 저하되면서 식사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만성질환 등으로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다면 약물 부작용으로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년층은 식사량이 적은 편이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노인 3명 중 1명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75% 미만으로 섭취했다. 식사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영양소를 섭취하기 쉽지 않다. 나이가 들면 노화로 위점막이 위축돼 음식 소화·흡수능력이 떨어져서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해도, 젊은층에 비해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자연히 줄어들어 영양 불균형 문제가 잘 생긴다.

영양 불균형은 중장년층의 체력을 저하시키고 질병을 유발해 삶의 질을 낮춘다. 부족하기 쉬운 대표적 영양소와, 부족했을 때 생기는 증상 및 질병에 대해 알아보자.

비타민D
세브란스병원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 혈중 비타민D 농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의 86.8%, 여성의 93.3%는 비타민D 부족이었다. 중장년층 비타민D 부족은 칼슘 흡수 저해를 일으켜, 골다공증을 유발해 골절 위험을 높인다. 근육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 부족하면 근육통이나 전신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비타민A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45.3%는 비타민A를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 비타민A는 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 적응하게 하는 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백혈구 생산을 돕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나 야맹증 등 안구질환 위험이 커진다.

철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16.8%는 철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빈혈이 생긴다. 빈혈이 있으면 곧잘 어지럽고,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개선되지 않는다.

중장년층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 세 끼니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과 함께, 양질의 간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비타민D나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유제품, 비타민A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당근·파슬리·케일 등), 철을 섭취할 수 있는 삶은 콩이나 단호박 등의 식품을 추천한다. 의사·약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할 수도 있다.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섬의 조화!

‘고군산군도 구불길’



올해의 걷기 테마로 선정한 ‘섬길’의 첫 번째 코스는 ‘군산 고군산군도 구불길’이다. 군산 구불길의 8코스인 고군산군도는 예로부터 ‘선유 8경’이라 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다. 고군산군도의 중심인 선유도는 군산도란 이름으로 불렸으며 나라를 지키는 수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수군이 육지로 이동하면서 군산진이라 불렸고 군산도는 옛 군산이라는 의미로 고군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아름다운 고군산군도의 비경을 품고 있는 장자봉 가는 길

군산 앞바다의 크고 작은 섬 63개를 총칭하는 고군산군도는 서해 낙조가 아름다워 명승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다. 새만금 사업의 완성과 함께 국제해양관광단지 추진으로 이제는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들이 육지와 이어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걷기 여행의 파트너로 해외 출장 중인 엄마를 대신해 아들과 함께한다. 여행의 시작점인 비응항에서 섬까지 가는 수단은 배가 아닌 멋진 2층 순환버스이다.

순환버스 2층에 타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멋진 바다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섬들을 지나 종착점인 장자도에 다다른다. 우선은 이곳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필수 코스인 대장도 장자봉으로 발길을 옮긴다. 초록 나무로 우거진 오솔길을 따라 오르다가 확 트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으며 잠시 휴식을 취한다. 울퉁불퉁한 바위를 따라 장자봉으로 오르니 숨이 가득 차면서 장자봉의 140m 높이가 믿기지 않는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해서 사방을 바라보니 힘들게 오른 것이 전혀 아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푸른 하늘과 바다 사이에 떠있는 섬들의 아름다운 자태에 다시금 감탄을 연발한다. 계단으로 조금 내려가니 금빛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우리를 기다린다. 기다리던 남편의 배신에 돌이 되어버린 할매바위의 슬픈 전설에 아픈 마음을 달래며 선유도로 향한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과 망주봉이 어우러진 선유도 돌레길

섬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선유도는 고군산군도 중에도 으뜸이다. 선유도로 이어지는 다리에서 푸른 바다 수면에 비춰진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길을 옮긴다. 높이 세워진 전망대에서 집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탄성을 듣고 가보니 대기열이 길게 늘어섰다. 다음 기회를 약속하고 끝없이 펼쳐진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방향을 틀어 아들과 함께 여유롭게 백사장을 걸어본다. 그저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뛰놀며 신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가롭다. 한쪽에서는 아빠와 함께 뭔가를 찾는 듯 열심히 모래를 파보는 어린이의 작은 손이 앙증맞다. 어릴 적 우리 아이들과 하루 종일 나지막한 해수욕장에서 조개를 캐던 옛 추억이 떠오른다. 백사장 끝으로 선유도의 명물인 망주봉이 모습을 드러낸다. 옛날 유배되어온 충신이 산봉우리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뚝 솟은 망주봉을 바라보며 동네 한 바퀴를 돌고나니 배에서 식사 시간임을 알려준다. 이곳의 풍부한 해산물로 만든 선유도 해물짬뽕으로 맛있게 점심을 해결한다. 선유도 바닷길을 따라 무녀도로 넘어가는 선유교로 향한다. 밀물 때가 되어 흐름이 거세지는 바다 위를 가르고 지나가는 쾌속선의 모습이 아름답다.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3시간, 1만 5천보의 걷기를 마무리한다. 



여행 TIP

섬 안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쉽지 않은 데다 걷기의 시작점과 종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비응항에 주차한 뒤 순환버스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코스를 시간 여유에 따라 선택해서 걸을 수 있다. 시간이 가능하면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선유낙조를 보는 것도 좋다.

순 천 향 대 학 교

순천향대-마크로젠, MOU



순천향대학교는 1월 16일, 교내 대학본관 3층 회의실에서 (주)마크로젠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위한 의료 및 유전체 정보기반 정밀의학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암·희귀질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체 정보 기반 진단 및 치료 방법 공동 연구, ▲정밀의학 서비스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양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유전체 정보, 의학 및 의료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정밀의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연구에 관한 프로젝트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4개 부속병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선정…연 1억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 순천향대학교 등 30개 대학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으로 추가 선정·발표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해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말까지 대형사업 61개교·소형사업 10개교 등 전국 71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학은 고용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해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최대 5년간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공자아카데미 ‘중국 현지 캠프’ 성료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천안과 아산 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톈진시 난카이대학(南開大學) 등 현지에서 ‘공기움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아산시 산해관, 아산고 공자학당, 천안고 공자학당에

서 중국어·문화활동 수업을 이수한 아산과 천안 지역 내 4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생활 필수 중국어와 듣기, 읽기, 쓰기 등 ‘종합 중국어과정’ 연수로 진행됐다.

순 천 향 대 학 교 중 앙 의 료 원

이라크 중환자 전문의료서비스 역량강화사업 킥오프 미팅

KOICA-순천향대중앙의료원 보편적 의료 위한 첫발



이라크 사업의 총괄을 맡은 의료원 국제의료기확단(단장 유병욱)은 2월 8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관1층 청원홀에서 이라크 중환자 전문의료서비스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내·외부 전문가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

업의 중기전략과 세부 실행계획, 전문가 컨설팅, 역량개발 프로그램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이라크 중환자 전문의료서비스 역량강화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6년 동안3,600만 달러(394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에 중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세우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은 이우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맡는다. 사업관리보조는 김용현 국제사업팀장, 보건 의료 컨설팅 부문은 방덕원 심장내과 교수가 책임자 역할을 한다.

제10회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QI페스티벌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2월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제10회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QI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환자 중심의료를 위한 순천향의 노력’을 주제로 각 병원에서 진행한 QI 활동과, 각 병원별 QI 우수활동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 천 향 대 학 교 서 울 병 원

몽골 12개월 여아에게 꿈과 희망 선물



순천향대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이 몽골 구개열 여아를 병원으로 초청해 인술과 의술을 통한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 탁민성 성형외과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29일, 몽골의 12개월 된 여아 AMINGTERGE에게 약 1시간에 걸친 구개열 수술을 집도했다. 탁 교수는 2017년 8월,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AMINGTERGEL을 처음 만났고 구개열 진단을 했지만, 아이의 가족들은 현지의 의료기술과 비용문제로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치료비용은 불우한 환우를 돕기 위해 조직된 ‘순천향 나눔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세방이의순재단(이사장 이의순)이 힘을 보탰다. 또 아이의 대한민국 초청 소식에 협력병원인 몽골송도병원(UB Song Do)도 크게 기뻐하며 항공권을 지원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 개소식



동원 순천향중앙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옥시영 로봇수술센터장, 탁민성 병동진료부장 등 100여 명의 교직원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로봇수술을 활발하게 시행 중인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환자

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다짐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황경호 의료원장은 “출발이 늦었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직원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병원 일일 체험학습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1월 19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중고등학생 17명을 대상으로 병원일일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에게 전문 직업 소개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마련한 체험행사는 병원소개, 의사와 간호사 직업소개, 수술실, 심혈관센터, 병리과, 재활치료실 견학 및 체험 등으로 꾸며졌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5년 연속 ‘A’

지역응급의료센터 부문 서울 1위, 전국 2위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5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한 이번 평가는 전국 446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부문 서울 1위, 전국 2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안전성, 환자중심성, 공공성 등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영주 응급의료센터장은 “저희 순천향은 응급환자 분들의 생존성을 위해 매년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과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 천 향 대 학 교 부 천 병 원

외과 외래 리모델링 완료·소아외과 전문의 영입



부천병원 외과는 1월 2일부터 본관 2층에 마련된 새 외래 공간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처치실, 초음파실, 환자 교육상담실을 새로 구축하고, 진료실 확충 및 쾌적한 환자 대기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외래 내에 장기이식센터와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여 환자들이 언제든 수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설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진도 보강했다. 부천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 외과 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이철구 소아외과 교수를 영입했다.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소아외과 의사는 3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 교수는 경기 서부권의 유일한 소아외과 의사다. 소아외과 전문의를 영입함에 따라 소아 서해부 탈장, 충수염, 괴사성 장염, 선천성 소화기 기형(식도무공증, 위, 십이지장, 소장, 직장 및 횡문직장 기형 등), 소아암, 담관낭종, 담도폐쇄증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아 전용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가능해졌으며, 소아 청소년과·신생아집중치료센터·광역응급의료센터 등과 협진해 소아청소년 응급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한다.

뇌동맥류수술 1500례 기념 심포지엄



부천병원이 1월 24일, 순의홀에서 ‘뇌동맥류수술 1500례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뇌동맥류수술 1500례 돌파를 기념해 뇌신경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Cure에서 Care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는 교육 세미나 순서로 ▲뇌동맥류 환자의 응급처치(조영순 응급의학과 교수), ▲뇌경색과 감별해야 할 질환(이승재 신경과 교수), ▲뇌동맥류 스크리닝 영상검진(이아름 영상의학과 교수), ▲뇌혈관조영술 마취와 모니터링(정양훈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2부는 ‘뇌동맥류 수술과 환자 소통’을 주제로 ▲환자 관점에서 본 뇌동맥류수술(순천향대 부천병원 뇌혈관수술환우회 회장), ▲우리 병원 뇌동맥류수술 1500례 역사(김범태 뇌신경센터장) 등이 발표됐다.

김범태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신경센터장은 “우리 병원은 개두술로 뇌동맥류 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머리를 열지 않는 코일색전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최근에는 뇌동맥류 치료의 약 80%에 코일색전술을 적용하고



서울병원 동정

이동환 교수, BH4 가족건강캠프 개최

희귀난치질환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동환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리움 스파캐슬에서 제1회 BH4 가족 건강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GC(Green Cross)녹십자의 후원으로 전국 병원에서 치료 중인 BH4 반응형 페닐케톤뇨증(PKU), BH4 결손증 환자 및 가족 110명이 함께 자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장재철 교수,

제9회 대한말초신경학회 학술대회 주관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재철 신경외과 교수가 1월 28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대한말초신경학회 정기 학술대회를 주관했다.



부천병원 동정

문중호 교수(소화기내과)

18.01.06 대만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강의
18.02.01~03 독일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강의

임성희 교수(중앙혈액내과)

18.01.18~20 미국 2018 Gastrointestinal Cancers Symposium에서 포스터 발표

장안수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18.01.18~20 독일 5th International Workshop on Lung Health에서 포스터 발표
18.02.28~03.07 미국 The AAAAI/WAO Joint Congress에서 발표

정한용 교수(정신건강의학과)

18.01.24~26 필리핀 AFPA에서 포스터 발표

박재성 교수(영상의학과)

18.01.25~28 인도 ASIA OCEANIAN COGRESS OF RADIOLOGY에서 구연 발표

박성규·김세형 교수(중앙혈액내과)

18.02.02~04 일본 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서 발표

유창범 교수(소화기내과)

18.02.16~17 미국 Rocky Mountain Interventioanal Endoscopy Course에서 강의

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이식 100례 돌파

부천병원이 최근 간이식 100례를 돌파했다. 부천병원 외과 간이식 팀(김형철·정준철·정재홍 교수)은 2007년 4월, 첫 간이식을 시작으로 11년 만인 2018년 1월 26일, 간이식 100례를 돌파했다. 이 중 뇌사자 간이식이 50건, 생체 간이식이 50건이다. 간이식 수술은 여러 외과 수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술 중 하나로, 이번 성과는 부천병원이 간이식 수술 분야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지난 10년 동안 노력한 결과다. 부천병원이 그동안 이뤄낸 간이식 수술 성과도 뛰어나다. 2011년 5월, 국내 최초로 무수혈 간이식에 성공했다. 또한, 2016년 6월, 인천·경기 서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에 성공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인지역 최초로 간·신장 동시 이식에 성공했다. 부천병원은 앞으로 이식 장기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3년 연속 1등급

부천병원이 폐질환 치료 강자임을 재확인했다. 부천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2016년 5월부터 1년간 만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외래환자를 진료한 전국 6,4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을 평가했다. 부천병원은 종합점수 93.44점으로 경기서북부권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인 60.91점을 훨씬 웃도는 우수한 성적이다. 부천병원은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번 평가 외에도 폐암 등 각종 암과 중증 질환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순 천 향 대 학 교 천 안 병 원

2018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 개최



1월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송원홀에서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갖고 2018년을 희망차게 출발했다. 행사에는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도 격려차 참석했으며, 송구영신 동영상 시청, 신입 경영진 임명장 수여식, 시상식, 신년사, 신년하례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명장 수여를 받은 신입 경영진은 19대 병원장에 연임한 이문수 병원장을 비롯해 강규식 부원장, 진동규 내과1진료부장, 정두신 내과2진료부장, 윤석만 외과1진료부장, 김준범 외과2진료부장, 배상병 수련부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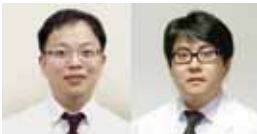
석면환경보건센터, 환경부와 충남도 공로표창 수상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피해 구제에 기여한 공로로 강민성 사무국장과 오단비 연구원이 각각 환경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피해를 진단, 치료, 연구, 관리하는 국가 지정 석면전문기관이다. 센터는 석면피해 우려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방교육,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석면노출 정보 수집과 DB구축 등을 전담함으로써 석면피해 구제제도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혜영 간호사, SCI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천안병원 병동 간호사 김혜영의 연구논문이 세계적인 SCI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Nursing에 게재됐다. 간호사의 연구논문이 단독으로 SCI국제학술지에 실린 것은 이례적이다. 김 간호사의 논문은 ‘Changes in the Dysphagia and Nutritional Status of Patients with Brain Injury(뇌손상 환자의 연하곤란과 영양상태 변화)’이다. 논문은 연하곤란 정도에 따른 적합한 식이제공 시점과 간호사의 모니터링 시점에 대한 객관화된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응급의료센터, 119구급서비스 발전 공헌 정부 포상



좌 이동욱 교수, 우 이정원 교수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최근 충청남도 119구급서비스 품질과 도민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과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 응급의료센터는 2015년부터 충청남도 119구급대원 교육 전담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대원들의 구급서비스 역량을 높임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일조해왔다.

아프리카 르완다 기트웨의대 관계자 방문 견학

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르완다의 기트웨(Gitwe)의과대학 관계자들이 1월 31일, 천안병원을 방문 견학했다. 방문자는 기트웨의대 부총장과 산부인과 교수를 비롯해 의대 본과 4학년생 5명 등 총 7명. 이들은 병원 역사와 현황소개를 들은 후 검진센터, 외래진료관 등 병원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봤으며, 병원 옆 순천향대의대 항설시물레이션센터로 이동해 첨단방식으로 진행되는 의대 수업도 참관했다.

원종원 뮤지컬평론가 초청 명사특강 개최

천안병원은 20일 오후 4시부터 병원강당 송원홀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사 초청 특강을 열었다. 특강에는 뮤지컬 분야에서 평론, 번역, 강연 등으로 명성이 높은 원종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초청돼 ‘뮤지컬과 창의적 사고’를 주제로 90분간 강연했다. 참석 교직원들은 ‘아는 만큼 즐긴다’며 많은 유명 뮤지컬 작품과 뮤지컬 음악들에 얹힌 뒷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원 교수의 강연을 통해 뮤지컬에 흠뻑 매료됐다.

교직원들 6년째 불우환자 의료비 지원

천안병원 교직원들이 6년째 불우환자 의료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어 주위에 훈훈한 감

동을 전하고 있다. 교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6년간 기부금 1억 6천만 원을 모아 202명의 환자를 도왔다. 2012년부터 이어지는 의료비 지원에는 현재 462명의 교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017년에도 3천 1백만 원을 모아 43명의 환자를 도왔다. 이 같은 교직원들의 도움에 환자들은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보내오고 있다.

연구부원장에 백무준 외과 교수

천안병원은 백무준 외과 교수를 연구부원장에 임명했다. 연구부원장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3월 1일부로 새로 만든 직제다. 천안병원은 연구부원장직 신설을 계기로 중개연구와 임상시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역량을 갖추고, 연구중심 병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병원은 백 부원장을 중심으로 연구위원회를 신설해 병원 내 진행되는 모든 연구 및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인체유래물 은행은 바이오뱅크로 확대 개편해 함암제 및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순 천 향 대 학 교 구 미 병 원

제20대 병원장 취임식 및 2018년도 시무식



1월 2일, 향설교육관에서 제20대 병원장 취임식 및 2018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황경호 의료원장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한혁 병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순천향의 이념인 인간사랑 실천을 통해 환자가 찾고 싶은 병원, 경쟁력 있는 병원을 만들어 가자”며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협력병·의원 감담회 및 연수강좌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임한혁)은 1월 25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구미BS호텔 대연화장에서 2018년 협력병·의원 간담회 및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협력체계 강화와 진료정보 교환 및 의료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순천향대 구미병원과 진료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병의원 의료진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좌는 ▲심부전 치료의 최신지견(이현욱 심장내과 교수) ▲당뇨치료의 최신 업데이트(서미혜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뇌혈관 질환의 최신지견(김성호 신경외과 교수) ▲어지럼증의 최신 업데이트(정진우 신경과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4년 연속 A 등급



구미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416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영역인 시설, 장비, 인력과 6개 세부영역인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으로 진행됐다. ▲감염관리의 적절성 ▲전원의 적절성 ▲환자 분류의 신뢰 수준 ▲전담 의사의 전문성 ▲응급시설의 적절 운용 ▲이용자 편의성 ▲환자 만족도 조사 ▲병상포화지수 등 11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 우수 기관임을 인정받았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으로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뇌전증 공개 건강강좌 개최

안병준 신경과 교수는 2월 9일, 오후 2시 본원 향설교육관에서 ‘환자와 의사가 하나되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란 주제로 뇌전증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세계뇌전증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강좌는 뇌전증의 원인과 발생기전, 치료예후, 감별진단, 약물 치료 등 뇌전증의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치료법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과거 ‘간질’로 불린 뇌전증은 만성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군이다. 강좌는 뇌전증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환우와 가족, 뇌전증 질환에 관심 있는 지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천안병원 동정

퇴직(2018.2.28)

응급의학과 박세훈 교수, 소아청소년과 강은구 교수, 병리과 조준훈 교수, 영상의학과 하선 교수, 소화기내과 천아름·남재형·강효철·한동재 교수, 신경외과 심재현 교수, 신장내과 최치영 교수, 외과 이현용 교수, 정형외과 장병웅 교수, 응급의학과 정윤현 교수, 호흡기내과 오지현 교수

백무준 교수(외과)

18.01.22~26 미국 ASPN 2018 포스터 발표

강동현 교수(외과)

18.01.22~26 미국 ASPN 2018 포스터 발표

산부인과 전섭 교수

18.01.25~27 미국 NRG Oncology 2018 구연 발표

장성해 교수(류마티스내과)

18.02.15~17 프랑스 Systemic Sclerosis World Congress 포스터 발표

이종석 교수(피부과)

18.02.15~21 미국 AAD Annual Meeting 포스터 발표

이종은 교수(외과)

18.02.23~25 미국 Asian Clinical Oncology Society 포스터 발표

김성용 교수(외과)

18.02.22~26 미국 Asian Clinical Oncology Society 학회 참석

한선욱 교수(외과)

18.02.22~26 미국 Asian Clinical Oncology Society 포스터 발표

이상철 교수(중앙혈액내과)

18.02.23~25 태국 ACOS 2018 포스터 발표

김소영 교수(안과)

18.2.01~03 홍콩 APAO 강의

권세원 교수(정형외과)

18.02.19~22 독일 The Knee and Hip Meeting 학회 참석

봄의 서사시

개천 변의 버들강아지가 올해도 어김없이
솜털 부스스 기지개를 켜고 있다.

어제 내린 비로 아직 여린 솜털 위에 물방울 동그랗게 남아 있고
수줍은 얼굴인 듯 하얀 솜털 망울이 터지기 직전이다.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신비롭게 피어나는 버들강아지 모습에서
자연의 섭리에 또 한 번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다.

아직 떨구지 못한 버들강아지 위에 내려앉은 한 방울의 빗방울은
눈부신 햇살에도 굴하지 않고 반짝이고 있다.

비록 바람에 떨어질 운명이라도, 금방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모습은
분수에 맞는 무게를 안고 있기 때문이리라.

봄의 향연 속 먼 산언저리에 드리워진 하얀 운무는 퍼져나가고
산언저리에는 아직도 하얀 잔설이 남아 있음은
물러가지 않은 겨울의 끝자락이리라.

그 맞은편 산에도 그리고 뒤편 산에도
그렇게 봄은 겨울을 밀어내고 있었다.

Letter of Thanks

순천향대 천안병원 흉부외과 병동 간호사님들께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일 때문에 생면부지의 천안에서 살고 있는데 모친께서 고향에서 홀로 3년 정도 아버님을 간병하시다 작년 6월, 뇌출혈과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가눌 겨를도 없이 출초상이 날까 두려워 아버님을 천안으로 급히 모셨습니다. 일가친척도 없는 충청도에서 중환자인 아버님을 모시다 보니 오로지 의료진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2003년도 척추협착증 수술 직후 마취에서 못 깨어나시더니 그대로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멀쩡하게 수술실로 걸어 들어가신 분이 1급 장애자가 되어 17년째 숨만 쉬고 계십니다. 그간 전국의 대형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119를 나들이 가듯 이용했습니다.

매번 합병증이 생길 때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의료진은 아버님을 구해주셨습니다. 6개월 전에는 심장내과 이세환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보살펴 주셔서 생명을 또 다시 연장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얼마 전, 설 명절에도 중환자들이 노인성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신다는 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또 다시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찾았습니다. 명절이라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간호사님들을 괴롭히게 됐고, 그 예쁜 손으로 아버님 대소변을 다 받게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전국의 대형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요양병원 간호사님들도 꺼리는 일들을 흉부외과 간호사님들께선 정말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님을 잘 돌봐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버님께서는 많이 좋아지시고 염증도 많이 잡아냈습니다. 호흡기내과 환자를 흉부외과에서 군소리 하나 없이 미소로 받아주시는 것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전국 병원을 다녀봤지만 이리 친절하신 간호사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혼자서 아버님을 모시는 게 너무도 슬프고 외롭고 서러울 때가 많은데, 그 답답함과 서러움을 친절한 간호사님들께서 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병문안, 환자의 건강을 위해 자제해 주세요!



환자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셨나요?**
방문으로 북적이는 병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해 주세요.



마음으로 쾌유를
응원할 수 있어요.
SNS, 문자,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하세요.



손을 깨끗이 하고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세요.